사업구분 : 경상기본연구	Code 구분 : SS0101	농업경영 (전반기)
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	연구기간	연구책임자
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	**'04~'05**	**경기도원 작물연구과 서명훈**
경기지역 주요 작목별 생산이력제 도입에 관한 연구	'04~'05	경기도원 작물연구과 전명희
색인용어	농산물 유통, 생산이력제, 정보시스템	

1. 연구개요

가. 연구의 필요성

○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이력제 (Traceability system) 시행 긴요

○ 일본에서는 2001년 광우병 파동이후 농산물안전성 확보정책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유통단계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생산이력제 시행 강화

○ 우리나라는 2003년이후부터 농진청중심으로 본격적인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여 시스템 구축을 하였으나, 농가단위의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체계가 지역별, 품목별로 다양하여 생산조직체별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

○ 따라서 경기지역의 주요 작목에 대한 품목별 생산조직체 단위로 생산이력제 개발이 요구되며, 체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.

나. 연차별·단계별 종합연구목표

구 분	종 합 연 구 목 표
1년차	o 생산이력제 도입 및 시스템 현황 조사
2년차	o 체계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도출

2. 연구추진내용

가. 종합연구내용

세 부 과 제 명	주 요 연 구 내 용	연 구 목 표	연구연도
경기지역 주요작목별 생산이력제 도입에 관한 연구	o 생산이력제 국내외 추진 현황 분석 - 국내외 시스템 분석 - 참여농가 현황조사 o 작목별 생산이력 시스템 구축방안 o 생산이력제 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방안	o 생산이력제 현황 분석 o 주작목에 대한 생산 이력제 시스템 구축	'04~'05

나. 당해년도 세부연구내용

세 부 과 제 명	연 구 내 용
경기지역 주요 작목별 생산 이력제 도입에 관한 연구	o 조사방법 : 문헌 및 농가조사 o 조사지역 : 남양주, 여주, 양평 등 o 조사대상 : 생산이력 추진 농가 20농가 o 주요조사항목 - 생산이력제 국내외 현황 분석 - 기구축 시스템 조사 - 참여 농가 현황조사 - 작목별 생산방법 및 유통실태 - 작목별 생산이력 추진 시스템 구축방안

3. 연구결과 활용계획

○ 주작목 생산이력제 시스템 (영농활용, 2005)

4. 기대 및 파급효과

○ 경기지역의 주작목 생산이력제 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

5. 연구원 편성

세 부 과 제 명	구 분	소 속	직 급	성 명	담당업무	전화번호
경기지역 주요	세부과제책임자	작물연구, 경영정보	지방농업연구사	전명희	연구총괄	229-5789
작목별 생산	공동연구자	〃	〃	서명훈	시스템분석	229-5786
이력제 도입에	〃	〃	〃	김형덕	자료수집	229-5787
관한 연구	〃	농촌진흥청	농업연구사	이철희	방향제시	299-2378

사업구분 : 경상기본연구	Code 구분 : LS0108	채소 (전반기)
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	연구기간	연구책임자
상추 신품종 육성	**'04~'09**	**경기도원 원예연구과 이해길**
1) 상추 신품종 육성	'04~'09	경기도원 원예연구과 이해길
2) 상추 우량계통 지역적응 시험	'02~'09	〃
색인용어	상추, 신품종 육성, 지역적응	

1. 연구개요

가. 연구의 필요성

○ 2002년 전국 상추 재배면적은 6,778ha이며 경기도는 2,592ha로 38%를 점유하고 있는 경기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채소임.

○ 상추의 생육은 5℃이상에서 가능하지만 생육적온인 15~20℃에서 가장 왕성한 생육을 보이고 있어 겨울철 저온에서 생육이 빠른 상추 품종육성이 절실함.

○ 여름철 수경재배시 적상추 착색이 불량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 저하를 초래하여 여름철 적색 착색도 증진과 추대가 늦은 품종 개발이 시급함.

○ 상추의 쌉쌀한 맛은 Bitter sesquiterpene lactones이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기능성 물질임(Barton 등, 1958).

○ 한국인의 17%가 불면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8%는 치료가 필요한 수면장애 환자(홍, 2001).

○ BSL 고함유 상추 개발로 상추의 기능성 향상과 새로운 상추 수요 창출 필요